

사후보도자료

日고교생, "추운 날씨엔 역시 오뎅 국물이 최고지! 한국에서는 어묵!" 지역대회 우승한 日고교생, 도쿄서 말하기 결승대회 경합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7 개 도시에서 개최된 지역예선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생을 지역대표로 도쿄에 초청해 「함께 말해보요 한국어」 고교생전국대회를 3 월 9 일(토)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개최했다.

지역예선과 전국결승을 연계하여 개최한지 17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고교생이 지역예선대회에 참가(369 명), 그 중에서 22 명이 결승무대에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축제음식’을 주제로 한 대본에 창작을 더해 2 인이 촌극으로 발표하는 ‘스킷부문’과 6 가지 사진(한국요리, 불꽃놀이, 관광지, 하늘, 벚꽃, 자유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추억, 관심사를 발표하는 ‘스피치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같고 닮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으며 일본고등학교의 한국동아리도 대거 참여하여 K-POP 댄스와 연극을 선보였다.

스피치부문에서 출전한 미도리카와 리치 리리(여, 나가사키현립 쓰시마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때 본 캄보디아 내전의 상처와 난민으로 생활한 친구 어머니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작은 한 걸음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날을 꿈꾼다’고 이야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미도리카와 학생은 중 1 때 처음 한국어를 접했으며 쓰시마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 장래에는 영화분야에서 한국어실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킷부문에는 모토하시 하나와 다테이시 나쓰미 팀 (여, 야치요쇼인고등학교)이 청계천 등불축제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축제음식과 함께 실감나게 소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회를 주최한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한국어를 배우고 즐기면서 쌓인 추억을 바탕으로 한일 우호와 밝은 미래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라며 출전자들을 응원했다.

다음 전국대회는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 맞이하는 2025 년 3 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